

인권 지도식		
등록일	분류기호	사도번호

SAd.c.1

51

혼자서라도 한 다 니 까!



作 朴 在 哲
画 岡 村 規 子

이 만화의 주인공 송신도 할머니는 1922년 충청남도에서 태어났다. 16살때 대전에서 잔심부름을 하다가 나이든 조선여자의 「전쟁터에 가서 나라를 위해 일하면 돈을 벌수 있다」는 꼬임에 넘어가 평양으로 갔다. 거기서부터 수많은 여자들과 함께 「만주」(滿州), 천진을 거쳐 중국중부의 무창까지 끌려가 「세계관」이라는 위안소로 넘겨졌다. 1938년말, 중일 전쟁이 전면화한 직후의 일이었다.

그 위안소는 남경(南京)에서 대학살사건을 저지른 일본군이 무한(武漢) 공략작전을 수행하여 무창(武昌), 한구(漢口) 일대를 점령하며 설치한 곳이었다. 약 3년후, 임신한 송할머니는 한구의 해군위안소로 옮겨져 출산, 아를 남에게 넘겨주고 악주(岳州)로 다시 옮겨졌다. 악주를 거점으로 하여 중국의 전선지대를 전전했다. 일본군의 명령에 따라, 군의 트럭을 타고 「부대를 따르는 위안부」로서 말그대로 「종군」해야만 했던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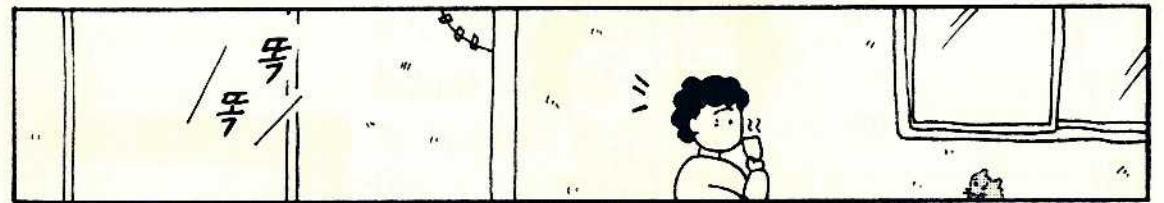
그간 군인들의 칼에 맞은 상처가 지금도 등과 허벅지에 남아있고 매일과 같이 심하게 구타당한 탓으로 귀도 멀어졌다.

1945년8월, 한국이 해방되면서 7년이나 계속된 송할머니의 「위안부」 생활도 끝났다.

그러나 일본군대에게 방치당하여 귀국의 길을 찾지 못하던 할머니는 「같이 일본에 가서 결혼하자」라는 일본군인의 말을 믿고 일본으로 건너왔다. 그런데 그 군인은 일본 시모노세키(下関)에 도착하자마자 송할머니를 버리고 만다. 민간인 노릇을 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일본으로 돌아갈 것을 노린 군인에게 속아서 이용당한 끝에 낯설은 이국땅에서 외톨이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절망속에서 만난 재일한국인 남성과 같이 살게 되었으나 그 남성의 사망(1982년) 후는 혼자 살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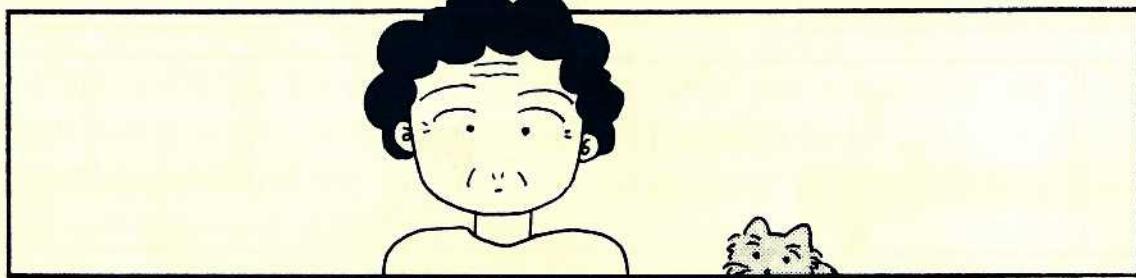
그러던차에 1992년1월, 「종군위안부 110번」이라고 하는 신고전화 가 개설되어 송할머니를 아는 사람이 여기에 신고, 이를 계기로 재일한국인 전 「위안부」로서는 처음으로 재판을 걸게되는 경위와 그 후의 생활등에 대해서는 만화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한국인 전위안부재판을 지원하는 회



아
노.

전쟁 때
여기를
들려주세요.



찾아온 사람은
다른아닌
가와다씨였습니다.

그래요? 내지도
당신나이 또래 자식이
있다우. 중국
어딘가에.

네 거기
앉으슈

그래서
무장에서...
네
가와다씨가 송할머님의
여기를 진지하게 들어
주었기 때문에 할머니는
「위안부」였을 때의 쓰라린
경험을 알아주는 사람과
처음으로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할머니는 TV를
통해서 한국의
전 「위안부」들이
소송을 일으켰다
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저 판?
이길 수
있는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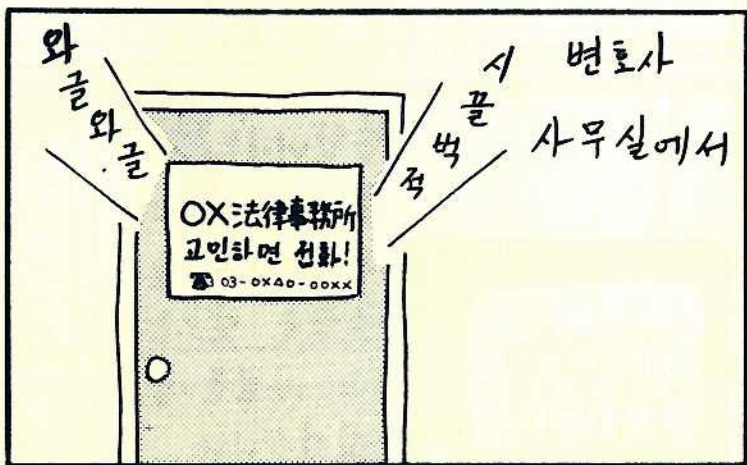
만일 지게
되면 부끄러워
서 일본에서
어떻게
살아?

난
결심
했다!!



어차피 오래
살지 못할거,
하고 싶은
말이나 다하고
죽자.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게 결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송할머님은 수많은
밤을 하얗게
지내며 고민한
끝에 소송을
결심한 것입니다.



소송은
가명으로
하는게
좋지 않아요?

본명을
밝혀 협박
이라고
당하면...



보상청구
금액은
얼마로
해요?

가
와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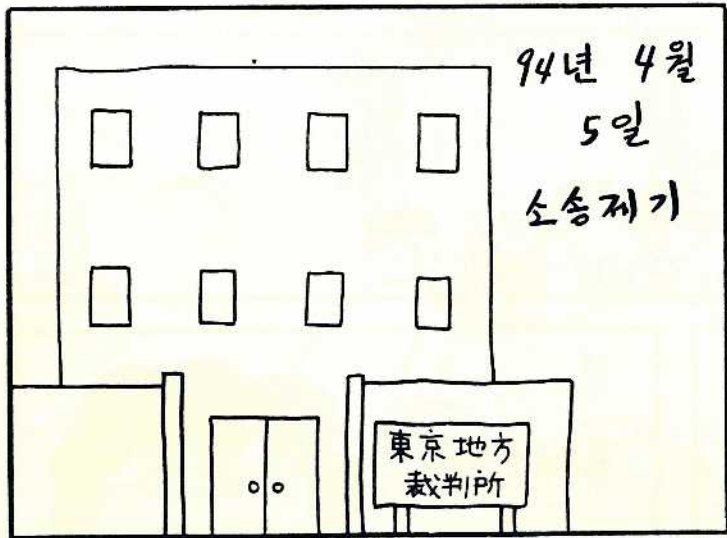
1. 딱엔 좋은
청구해야지



난
본명으로
할 테다.

돈이라꾸?
사죄가 먼저야!
무엇보다도 양다머리아저씨
가 사죄해야지.
사죄하면, 그 다음에
보상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지.

라는 한마디로
본명으로 소송제기
청구금액은
명시하지 않음
(일본쪽 스스로가
제시해야 함)
이라고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94년 4월
5일
소송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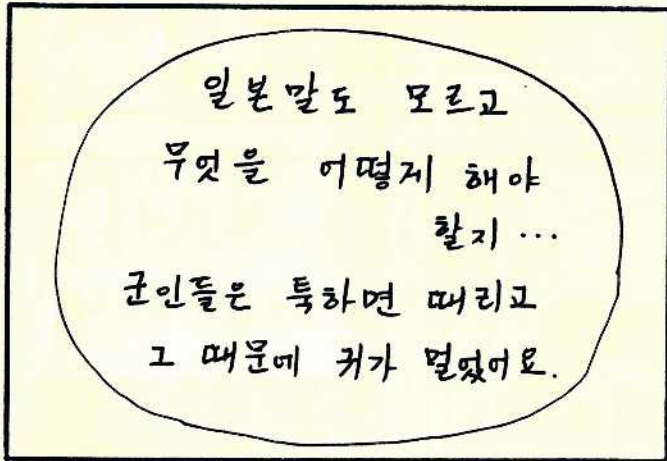


원고인은
의견을
진술
하십시오.



할머니.
힘내세요

16살때 속아서 전선에
끌려갔지요. 하루에도
몇십명의 군인을 상대
해야 했습니다.



일본말도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
군인들은 특하면 때리고
그 때문에 키가 멀었어요.



재판관님,
제 말을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잘
듣고
있소?



그날 밤은 밀서쿠
「지원하는 회」
회원들과

☆
꽃씨쿠

☆
와큰와큰

술마시고
노래 부르고
즐겁게
지냈습니다.

「지원하는 회」 ... 「재일한중인 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회」의 약칭



그런데 마을로
돌아오니 동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
있습니다.



그래. 할머니
재판해서 돈
많이 받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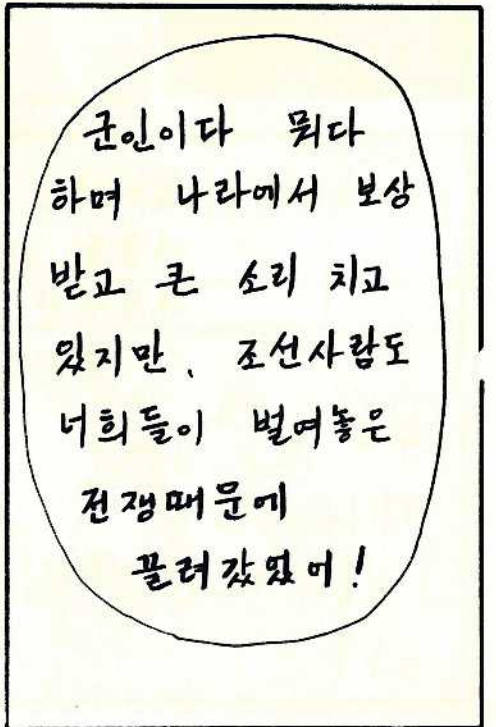
헛! 명시인
생활보호를 받는
주위에 나라를
삼대로 재판을
여? 도대체
뭘 믿고
그러는거야?



흥!
조선사람이
왔어?
조선사람은
마늘냄새가
고약해서
...



이놈들!
너희들이
전쟁이 어떤건지
알기나 해!



군인이다 뭐다
하며 나라에서 보상
받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조선사람도
너희들이 벌여놓은
전쟁때문에
끌려갔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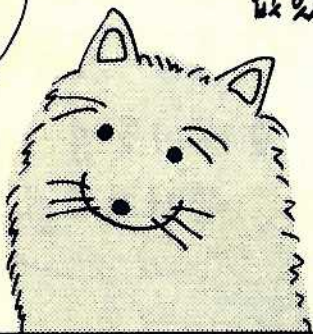
똑같은 인간인데 왜 차별하는거야?
일본인 군인, 군속은 사람 죽이고 나라에서
보상받으며 잘 먹고 잘 사는데
강제로 끌려갔던 조선사람은 생활보호라구?

나오느니
한숨
이네.

치비아,
그렇다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바다에 빠져
죽어버릴까?



할머니는 억울한
마음을 치비아에게
하도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치비도
93년 11월,
노쇠로 죽고 말았습니다.

치
비

한편, 진상규명과 개인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내외여론에 못이겨 일본정부는
드디어 일본군의 관여와
「종군위안부」에 대한 강제성을
인정, 1993년 8월,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는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손상시킨 문제
이며 사죄와 반성의...



순자야?
TV
봤나?

요
보세
요?



띠
르
르
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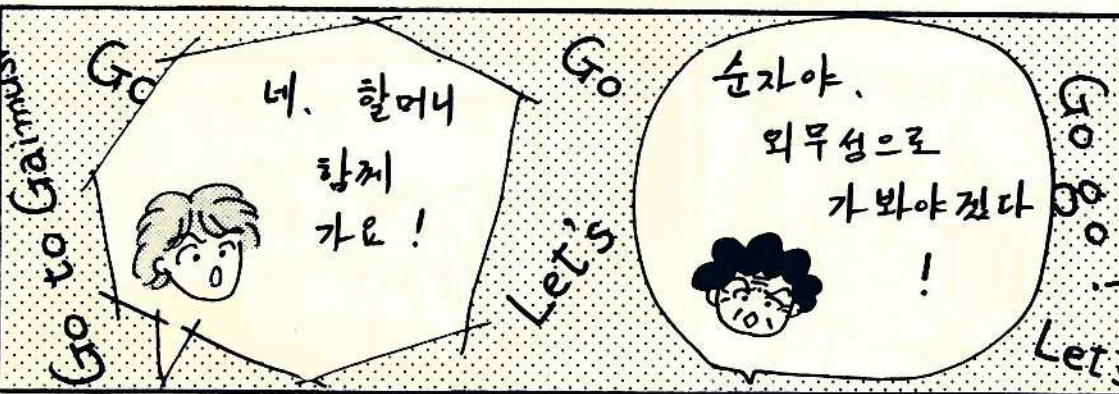


외무성의
관료가 사죄했
더군. 나한테도
직접 사죄해야지?



네, 할머니
랑제
가요!

순자야,
외무성으로
가 봐야겠다
!





일부러
먼길을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
습니다.



에헴. 소위
「위안부」 문제는
「여성의 존엄과
명예」 ...
아니, 아니

에 - 또 -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손상시킨
문제」로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시
하고 싶다는 ...



그렇다면 송할어님
제도 직접
사죄문을
내겠지요?

그건 ^꼭 ^은
한국정부가
사죄하라고
하니까 ...



아. 꼭
실려했
습니다.

까딱 방
잘 못하
면...



송할어님이
「위안부」
였을지의
여부는 「불지」
입니다.

「불지」
가 무슨
뜻이
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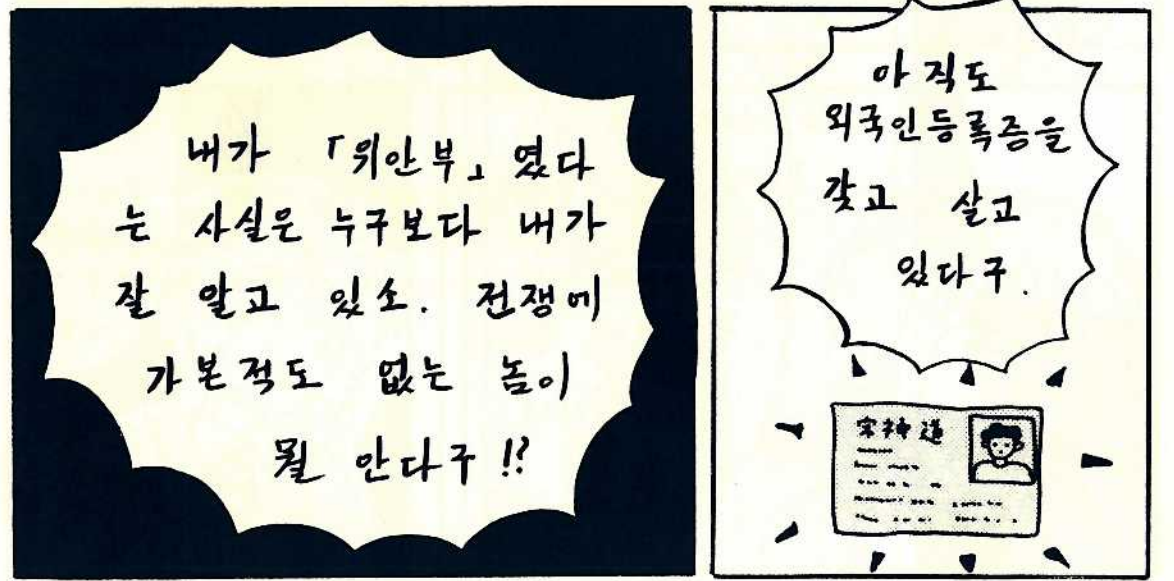
「불지」
라뇨?



즉, 송할어님께서
「위안부」 이셨다
하는 사실에 관해서는
알수 없다는 말씀
이지요

옛날
이야기
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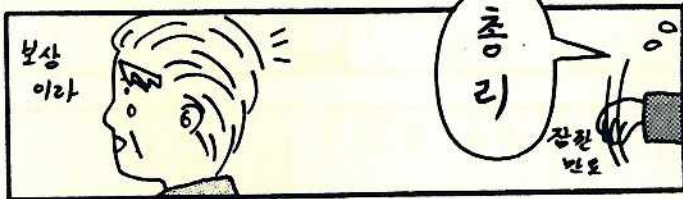
뭐
라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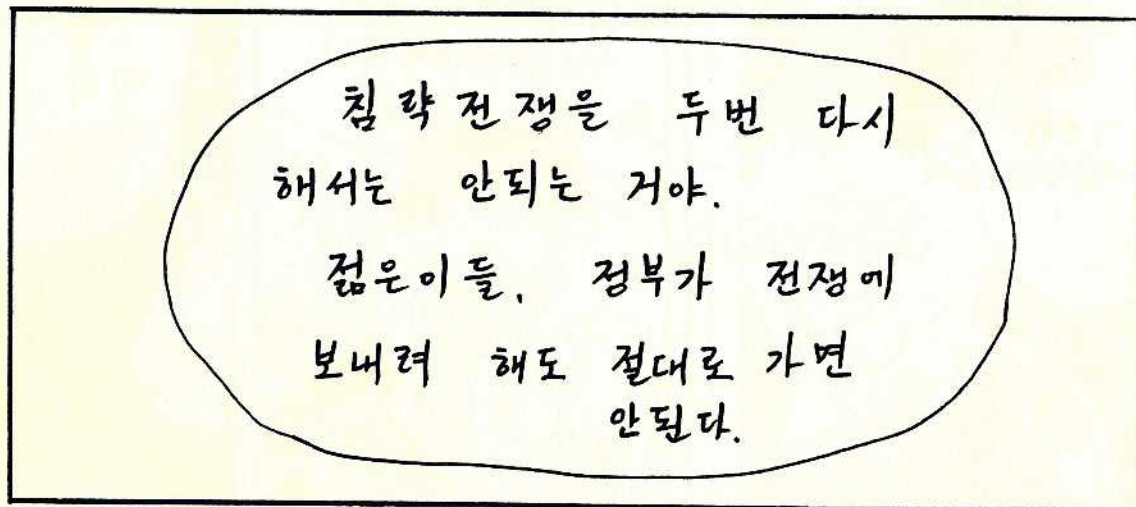


내가 「위안부」 였다
는 사실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소. 전쟁이
가본적도 없는 놀이
뭘 안다구 !!

아직도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살고
있다구.







송할머님제서 일본정부의 대응과 재판의 앞날에 대해 일말의 불안감을 갖고 계시는건 사실입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송할머님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넓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할머님제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 재판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할머님을 후원해 주십시오.



이 만화는 94년 10월 「단결축제」에서 상연된 연극대본이 원작입니다.

編集・発行：在日の慰安婦裁判を支える会
連絡先：〒131 墨田区向島郵便局私書箱32号
TEL：0422-41-0251 FAX：0422-48-1662
郵便振替：00130-0-760722
印刷：エム企画印刷
